

百弗庵 崔興遠의 時代와 그의 現實對應

李 在 喆*

• 日 次 •

- | | |
|--------------------------|------------------|
| 1. 머리말 | 3. 崔興遠의 家系와 師友 |
| 2. 朝鮮後期 嶺南儒林의 動向 | 4. 崔興遠의 出處와 現實對應 |
| (1) 仁祖反正 후 嶺南儒林과 西人과의 갈등 | 5. 맺음말 |
| (2) 甲戌換局 후 嶺南儒林의 政治的 몰락 | |

1. 머리말

선조 초에 성립된 士林政治는 붕당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18세기 蕩平政治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사림은 정국에서 배제되었고, 특히 남인 당론을 고수하던 영남지방은 철저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 권력이 소수 閥閥家門에 집중되어 가면서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었고 이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재야학자들에게서 모색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권에서 배제되었던 지방 유림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18세기 중양 정국이 지방과 고립될수록 변화의 모색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기 영남의 재지사족으로 은거하고 있던 崔興遠(1705~1786)을 주목할 수 있다.

최흥원은 사람정치의 모순이 정점에 도달하였던 숙종 후반기부터 영남사족이 철저히 몰락하였던 영조대에 대부분이 생애를 보냈던 인물이다. 그는 출사할 수 없는 현실의 정국을 직시하고 과거를 포기한 채 학문활동과 제자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향약을 실시하여 재지사족으로서 위치를 유지하였다. 또한 그는 영남

*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研究員.

유림과도 긴밀히 접촉하며 학문의 세계를 넓히고 영남에서의 위상도 제고하여 갔다. 그러나 그의 활동 범위는 영남 일부에 국한되었고 향촌에서 현실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최홍원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가 夫仁洞에 실시한 鄉約이 주목받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재지사족이 향촌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향약을 이용하였음이 밝혀졌다.¹⁾ 그리고 향약의 실시 배경에서 戊申亂 이후 지방민의 언론 통제책이란 관점에서도 보았다.²⁾ 그러나 최홍원의 활동을 탕평정국 하에서 영남유림의 동향과 관련지어 살피는데는 소홀하였다. 최홍원을 통해서 탕평정국 하에서 영남유림의 현실대응 모습을 잘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조선후기 정국의 동향을 구조적으로 파악 하는 방안도 될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최홍원의 시대와 현실대응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조선후기 영남유림의 동향을 인조반정 이후와 무신난 이후로 나누어 살피고, 이어서 최홍원의 가계와 사우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홍원의 출처와 현실대응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조선후기 영남유림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2. 朝鮮後期 嶺南儒林의 動向

(1) 仁祖反正 후 嶺南儒林과 西人과의 갈등

16세기 이래 士林派의 성장과 성리학적 질서가 총체적으로 확산되어 선조 초 士林政治가 확립되었다.³⁾ 사림정치는 그 전개과정에서 현실대응인식의 차이로 사림 내부에 退溪·南冥學派의 東人과 栗谷·牛溪學派의 西인으로 나누어졌다.

1) 鄭震英, 「朝鮮後期 鄉約의 一考察-夫仁洞 洞約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2·3 합, 1982.

2) 金容燮, 「朝鮮後期の 大邱 夫仁洞洞約과 社會問題」, 『東方學志』46·47·48합, 1985.

3) 李秉然, 「朝鮮前期 支配勢力의 갈등과 士林政治의 成立」, 『民族文化論叢』11, 1990.

사림정권이 수립된 선조 초에는 경상좌도의 退溪 李滉을 중심한 退溪學派와 경상우도의 南冥 曹植을 중심한 南冥學派가 정국을 주도하였다.⁴⁾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활발한 학문활동을 편 이황의 제자들은 전국적으로 퍼진 반면에 山林處士로서 修身에 중점을 둔 조식의 제자들은 경상우도에 국한되었다. 이들은 1575년 동·서 분당시 모두 동인으로 활동하였으나 1589년(선조 22) 己丑獄事의 처리에 불만을 품은 남명학파는 북인으로 나뉘어졌다. 남명학파를 영도하던 鄭仁弘은 임난시 강력한 재지적 기반으로 의병 활동에 뚜렷한 공적을 세우고, 더욱이 광해군 즉위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광해군대 영남 우도유림은 대북 정권의 핵심으로 권력 행사에 관여하였다. 정인홍은 대북의 산림으로 '遙執朝權'하는 한편, 조식의 학문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晦退辨斥, 『南冥集』발간, 南冥從祀運動, 조식 배향 서원 건립 및 사액 등을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인홍의 일부 문인들은 이 때를 발신의 기회로 삼아 정권과 밀착되어 갔으나 대북정권의 秕政이 심화될수록 이를 비판하는 세력도 나타났다. 한편, 좌도유림은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정인홍의 회퇴변척 상소를 계기로 우도유림과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일부 좌도 유림 중 정인홍 세력과 밀착된 인물들도 있었다.

대북정권이 권력을 독점하는 가운데 성리학적 명분론에 어긋나는 廢母殺弟와 명나라를 배반한 것을 구실로 서인이 인조반정을 단행하였다. 서인은 권력의 원천인 왕실과 결탁하고 집권당의 명분확보를 위하여 산림을 중용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영남인들을 요직에서 배제하였다.⁵⁾ 이에 따라 인조반정 이후 영남인으로 대신에 오른 자는 없었고 판서는 2명, 참판은 4-5명이며 관품이 높은 자는 불과 3품에 지나지 않았다.⁶⁾ 당시 남인이 처했던 상황은 인조의 다음 말에서 잘 나타난다.

4)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潮閣, 1995. pp.327~369.

5) 『黨議通略』仁祖朝: 『擇里志』卜居總論, 人心條.

6) 『擇里志』八道總論, 慶尙道條.

남인과 북인은 마치 수척한 말이 재갈이 물려 오직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얻은 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여 그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전부터 조정에서는 큰 논의가 있으면 한쪽 사람들이 반드시 대립하였는데 지금 유독 그렇지 않은 것은 서인들이 정권을 잡은 지 이미 20년이 지나 기세가 두려워 감히 異論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중략) 옛말에 “권력이 신하에게 돌아가니 쥐새끼가 호랑이로 변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매우 두렵지 않겠는가 7)

인조반정을 계기로 우도의 정인홍 세력이 도태되면서 영남유림은 갈등을 해소하고 재결집하여 서인정국에 대처하였다. 이들은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현안에 따라 서인 및 공신세력과 대립하였다. 영남유림과 서인과의 갈등은 牛栗從祀 논란에서 표출되었다. 서인은 집권 세력의 師門인 李珥(栗谷)와 成渾(牛溪)를 문묘에 종사시켜 서인 학파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했다. 이에 대해 남인들은 영남유림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반대하여 서인들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그러나 영남유림은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조정에서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8)

영남남인은 이러한 중앙정계에서의 열세를 지역적 기반의 강화로 만회하려고 하였다.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체제의 구축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牛栗從祀·禮訟 등에서 명분적 우위를 차지하여 재기를 도모하였다. 이는 곧 서인과 영남유림과의 본격적인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효종은 국정운영을 주도하여 왕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효종은 서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인을 등용하여 봉당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고 서·남인이 대립하는 정치사안에 대해서는 남인을 지지하는 調用策을 썼다. 영남유림은 서인들이 추진하는 우물종사를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성리학의 정통성을 지켜 장차 관직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9) 1649년(효종 즉위) 11월에 서인계 관학생

7) 『인조실록』권 47, 24년 3월 경신.“上曰 南北人 比如瘦馬之受箝制 被驅策惟其所牽 不得自由 此不過患失而然也 自前朝有大議 則一邊之人 必爲各立 今獨不然者 西人秉政 已過二十年 氣勢可畏 不敢貳故也 (중략) 古語曰 權歸臣兮鼠變虎 豈不重可畏也”

8) 고영진, 「17세기 전반 남인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8, 1992.

9) 薛錫圭, 「16-18세기의 儒疏와 公論政治」,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4. pp.172~

儒疏로 촉발된 우율종사 요구를 안동의 柳稷을 중심으로 거도적으로 반대하는 유소를 捧呈하여, 정국에 파란을 일으켰다.¹⁰⁾ 결국 서인이 집권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한 우율종사 운동은 영남유생의 반대로 또 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효종이 사망하고 현종이 즉위하자 인조의 계비인 慈懿大妃의 복제를 耨年服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3년복으로 할 것인가 하는 己亥禮訟이 발생하였다.¹¹⁾ 기해예송이 서인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나 영남유림은 기호 남인계 許穆·尹鏞·尹善道の 예론에 입각하여 송시열의 誤禮에 대한 책임 추궁과 그 처벌을 요구하려고 했다. 1666년(현종 7) 경상도 유생 柳世哲을 疏首로 하여 천여 명의 도내 유생이 聯名한 儒疏에서 송시열의 禮說을 논박하였다. 서인 집권세력이 이를 극력 배척하였지만 영남유림의 힘을 과시하였고 서인과 영남학과 사이에는 정권쟁탈의 범위를 넘어선 학문적·감정적 대립을 격화시켰다. 그리고 서인은 조정 관료를 중심으로 전국 각 도별로 牛栗從祀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경상도 유림 南重維·金綱 등 수백 명은 牛栗의 學術이 不正하고 處身에 瑕疵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저지시켰다.

1674년 효종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甲寅禮訟이 일어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예조에서 國制에 의거하여 기년복으로 정했다가 서인 朴世堂의 주장에 의하여 大功服으로 고쳐졌다. 그러나 대구유생 都愼徵이 기해예송의 기년복이 國制의 長子를 위한 복인데 大功服은 衆子婦服이므로 전후의 服制가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현종은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인의 예론을 파기하고 남인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오랫동안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였고, 여기에 영남유림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남인이 서인과 갈등을 보이면서 남인당론을 견지한 영남유림(‘嶺南’)은 근기지역의 남인(‘京南’)과 학문적·정치적 제휴를 모색하게 되었다.¹²⁾ 경남은 李滉에

174.

10)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pp.493~531.

11) 李迎春, 「第一次禮訟과 尹善道の 禮論」, 『清溪史學』6, 1989.

禹仁秀, 「朝鮮 顯宗代 政局의 動向과 山林의 役割」, 『朝鮮史研究』1, 1992.

12)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pp. 400~434.

서 鄭述로 이어지는 학통을 서울에 가져와 李元翼 → 趙綱 → 許穆 → 李瀼 → 蔡濟恭으로 이어지는 기호계 남인세력을 형성시켰다. 경남 가운데도 탁남은 庚申換局, 甲戌換局, 戊申亂을 거치면서 완전히 몰락하였고, 청남계는 허목 → 이익 → 오광운 → 채제공으로 이어지면서 영남과 긴밀한 제휴를 하였다. 영남과 경남은 당색과 학통이 같은 점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교류와 문자의 수수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교류로 일체감을 형성한 경남과 영남은 서인과의 갈등에서도 정치적 제휴를 통하여 대항해 갔다. 이 결과 나타난 것이 우율종사 반대운동, 예송, 숙종대 환국, 정조의 왕권 강화 운동 등이다.

(2) 甲戌換局 후 嶺南儒林의 政治的 몰락

숙종 즉위부터 갑인예송의 여파로 서·남인 간의 대립이 극심하였다.¹³⁾ 남인은 서인에 대한 공격을 송시열에게 집중시켰다. 진주 유학 郭世健이 갑인예송 때 誤禮를 주창한 송시열을 효종·현종의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인물에게 현종의 誌文 찬술을 맡길 수 없다¹⁴⁾고 주장하였다. 숙종은 송시열을 서인 예론의 창시자로 지목, 귀양보내고 告廟한 것을 필두로 서인을 대거 축출하고 남인 정권을 구성하였다. 남인은 戚里와 결탁하여 권력을 농단하는 濁南과 이들을 공격하고 나선 淸南으로 분기되었다. 점차 권력의 중심이 탁남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후 정권은 숙종의 주도 하에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이 단행되면서 서·남인간의 세력 교체를 가져왔다.

숙종대 영남유림은 환국을 거듭하면서 부침하였다. 숙종초 남인의 집권에 영남유림의 역할이 컸으나 영남인으로 재조자는 李元禎·李元錄·李聃命·金邦杰 등 20명 남짓하였고, 요직은 근기 남인들이 차지하였다. 숙종초 영남학파의 기

13) 洪順敏, 「肅宗初期 政治構造와 「換局」」 『韓國史論』15, 1986.

禹仁秀, 「朝鮮 肅宗代 政局과 山林의 機能」 『國史館論叢』43, 1993.

14) 『숙종실록』권 1, 숙종 즉위년 9월 병술.

수로 활약한 이원정은 이조판서에까지 승진하였으나 경신환국 후 許堅逆謀에 연루된 혐의로 처형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영남유림을 대표한 이현일은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였다. 京南은 숙종 초기 남인 집권 패퇴 원인 중의 하나가 영남의 인재를 도외시킨 데 있음을 반성하고 퇴계학통을 계승하여 영남유림을 대표하던 산림 이현일을 징소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¹⁵⁾ 그는 이 시기 산림 유현이 일반적으로 거쳤던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기사환국 후의 남인의 정치적 학문적 입지를 확대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¹⁶⁾ 특히 그는 이조판서로서 영남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현일은 갑술환국으로 노론이 집권하자 민비폐출 때 '天에 自絶했다', '糾禁'이라는 자신의 상소문구 때문에 광해군 때 폐모론자와 동일한 의리죄인으로 취급받았다. 그 결과 윤희와 함께 노론 정권으로부터 가장 철저하게 박해를 받아 늦도록 신원되지 않았고, 그의 문하생인 金聖鐸·趙德鄰 등도 그의 신원을 위해 상소하였다가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갑술환국 후 1711년(숙종 37) 벌써 영남의 인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아 도내 문과급제자가 많지만 수령과 찰방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¹⁷⁾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정조 때 남인 대신 체제공은 갑술환국 이후 대체로 100년 동안 벼슬길이 막힌 뒤는 4조 내에 無顯官者가 아주 많으니 100년 이전을 보고 관인을 선발하자고 제안하였다.¹⁸⁾

숙종대 붕당 간의 치열한 대립은 마침내 왕위계승에까지 관여하게 되었다. 경종이 즉위하자 소론이 득세하였고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에 권력에서 소외된 소론과 남인은 재야세력과 규합하여 전국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반정을 시도하였다. 이것이 곧 戊申亂(李麟佐의 난)이다.¹⁹⁾ 난의 주도

15) 禹仁秀, 「朝鮮 肅宗代 政局과 山林의 機能」 『國史館論叢』43, 1993. pp. 148~150.

16) 정호훈, 「17세기 후반 영남남인 학자의 사상 - 이현일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13, 1994.

17) 『숙종실록』권 50, 숙종 37년 9월 신묘.

18) 『정조실록』권 30, 정조 14년 6월 임술.

19) 吳甲均, 「英祖戊申亂에 관한 研究」 『歷史教育』21, 1977.

李鍾範, 「1728년 戊申亂의 성격」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李在喆, 「18世紀 慶尙右道 士林과 鄭希亮亂」 『大丘史學』31, 1985.

층 가운데 경상도에서는 斥和臣 鄭蘊의 4대손 鄭希亮(본명은 遵儒)이 있었다. 정희량이 무신란의 주도자로 참여하게 된 데는 우선 남인 당론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정희량의 가계는 정은 이후 현달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였으나 남인 명가와 통혼하였고, 정희량 당대에는 무신란 주도층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남인 명가로서 갑술환국 이후 廢痼되어 노론이 집권하는 한 관계로의 진출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희량은 '外起內應'의 전략에 따라 李能佐(이인좌의 동생, 熊輔라 불림), 金弘壽(정희량의 四寸姨從)와 함께 좌도유림의 포섭에 나섰다. 이때 포섭된 인물로는 안동 지역의 權榘·權德秀 부자, 權萬, 柳夢瑞, 黃翼再(중성부사) 등과 예천의 李潤師, 상주의 黃沈, 선산의 李燾 형제, 영덕의 申弼誨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영남남인의 명문 거족 출신이었다. 좌도유림과 접촉하는 데에는 이들과 친분이 많은 김홍수와 이능좌가 크게 활동하였고, 정희량은 우도에서 자신의 일족이 지니고 있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家丁·奴婢 및 募軍으로 구성된 120명의 군사를 동원하기로 계획하였다.

반란은 1728년 3월 15일 이인좌가 청주성을 함락하면서 시작되었다. 반란군은 계획대로 기세를 올리면서 북진하였으나 남하한 중앙 관군에게 궤멸되었고, 전라도 지역도 조정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고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영남지역에서의 반란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거병 일자를 3월 11일로 정하여 정희량의 군사가 청주에서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안동유림은 기회주의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이용보 등은 안동을 떠나 14일에 예천을 거쳐 안음의 정희량에게 가서 함께 기병하였다. 정희량 등 반군들은 3월 20일 안음 고현에서 기병하여 안음을 점령하고 다시 거창을 점령하여 안음과 거창에 나누어 주둔하였다. 반군의 세력이 자못 크게 되자 합천, 삼가의 수령들이 군대를 이끌고 합세하였다.

정희량은 반란군을 이끌고 이인좌와 합세하기 위하여 북진을 서둘렀다. 그러나 경상좌도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데다가 다른 지역 군대의 반격을 받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경상감사의 지휘하에 각 지방군을 동원하

여 성주·의령·안동방면에서 공격해 오자 정희량은 3면에서 협공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정희량은 전라도 방면으로 우회하여 북상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운봉 영장이 이미 팔랑치를 굳게 지키고 있었으므로 거창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처럼 정희량군이 북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약세의 군대를 거느린 이인좌는 정희량의 군대를 기다리지 못해 거병한 지 7일 만인 4월 21일에 북쪽으로 진격하였으나 곧 중앙군에 의해 궤멸되고 말았다.

한편, 좌도유림은 거사 초에 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인좌·이능좌·박필현·정희량 등 난의 주모자들은 거병전에 문경·안동·예천·순흥 등에 거주하면서 영남유림과 접촉하였다. 그러나 난이 일어나자 안동유림은 재빨리 관군의 편에 서서 屏山書院에 모여 창의군을 일으켜 이들을 토벌할 것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영남인의 인심을 수습하고 忠義之士의 궤기를 촉구하기 위해 영남에서 인망을 모으고 있던 前參議 李衡祥과 前應教 趙德鄰을 경상도 號召使에 임명하였다. 조덕린은 관료·유생 백여인을 규합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안동지역의 의병은 반란군의 형세와 軍情을 탐지하며 대구 방면으로 진군하였으나, 이미 반란군이 토벌되었으므로 해산하였다. 영조는 안동유림을 가상히 여기고 혐의자까지 석방하여 불문에 부치는 한편 회유와 인심 수습책을 적극 실시하였다. 이에 안동 유생 鄭東奎 등 300명은 영조의 관용 조치에 감사하는 상소를 올렸다.

무신란이 경상도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노론 정권은 영남지방에 안핵사를 파견하여 난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이 난에 참여 내지 동조하였던 사족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대구에서는 역당으로 몰려 효수된 자가 40여명에 달하였으며, 난의 평정을 기념하는 平嶺南碑를 세웠다. 經亂 지역의 하나인 우도는 좌도보다도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 안음을 거창과 함양에 분속시킴으로써 반란에 대한 댓가로 다스리고 정희량난의 사상적 연원을 조식에게까지 소급하여 우도를 반역향으로 규정하였다.²⁰⁾ 정희량난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남인들은 德川書院을 중

20) 『영조실록』권 52, 영조 16년 12월 신축.

심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의 우도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입장을 지켜나갔다.

무신난으로 왕권의 위기를 경험한 영조는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²¹⁾ 영조는 정국을 군주가 주재하는 바탕 위에 왕권 강화를 위해 봉당 타파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각 봉당 시비론의 핵심이었던 義理·禮說·斯文·士論·清議를 모두 당론으로 규정하고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정국에서 노론·소론·남인의 구별 없이 인재를 調用하였다. 탕평책으로 봉당 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권력은 闕闕 가문에 집중되어 갔다.²²⁾ 별열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3대에 걸쳐 당상관을 배출한 가문으로 인조대 이후 성립되어 영조대 이후 고정되었다. 이들은 國婚, 과거, 승문원의 分館, 史官, 弘文錄, 堂上官 등을 독점함으로써 별열의 지위를 유지 발전시켰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는 오로지 門地를 숭상하여 京華人을 앞세우고 鄉人을 뒤로 미룬다²³⁾는 비판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갑술환국 이후 남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축출되면서 별열은 대부분 서인(노론)이었다.

노론별열 정권이 강화되면서 남인의 근거지인 영남에 대해서는 노론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노론은 무신난 이후 영남을 강경책으로 진압하는 한편 회유책도 병행하여 노론으로 전향을 적극 권장하였다. 조정에서 영남인 수용의 기준은 학문, 무신난시 倡義 등이었으나 노론인물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노론에 동조하는 新見者が 출현하였다. 이 무렵 노론화한 경상도 지역의 가문을 보면 안동의 姜恰·安鍊石·李回寶계, 예안의 평산신씨, 상주의 함안조씨, 함창의 申碩亨계, 예천의 申敏一계, 선산의 金就文·李約東·金應箕 후손, 금산의 曹偉 후손, 함양의 鄭汝昌 후손 등이 있었다. 그래서 노론 新見者와 世守南論者와 대립 갈등이 발생하였다. 1735년 노론에 동조하는 영남유생이 兩宋의 문묘종사를 요청하자 곧 이어 남인계 영남 유생이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아버지와 할아버

21) 鄭萬祚,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震檀學報』56, 1983.

朴光用, 「朝鮮後期 蕩平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22) 車長燮, 《朝鮮後期閔閔研究》—潮閣, 1997. pp. 51~61.

23) 『숙종실록』권 30, 숙종 22년 7월 을해.

지의 논의를 배반한 무리라고 攻斥하였다. 이에 신견자들은 남인과 무신난을 연결시킴으로써 변질의 타당성과 新見을 내세우게 된 것을 명분으로 삼아 남인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노론세력은 경상도 지역에 노론의 세력 부식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노론 감사를 파견하고 안동에 金尙憲을 배향하는 書院의 건립을 시도하였다.²⁴⁾ 이는 우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무신난 전에 우도유림의 분열을 틈타 이미 우도에 진출한 노론은 난의 과정에서 창의를 표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와 명분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노론 일당전제가 지속되는 한 영남유림의 중앙정계 진출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영남을 인재의 府庫라 하여 영남인의 중앙정계 진출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별무성과였다. 영남인 偏論을 하게 되면 逆賊이 되고 설사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조정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²⁵⁾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영조에 의해 수용된 오광운·체제공·권상일·정옥·이형상 등은 노론이 설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안주하였다. 그 결과 영남유림은 비록 명현의 후예라 하더라도 모두 향품으로 사회적 지위가 떨어져 농사짓기를 달게 받으며 당론으로 말하면 역적으로 몰고 과거를 보려면 조정에서 버리니 차라리 농부가 되어 땅이나 파먹는 것이 낫다²⁶⁾고 하였다. 영남유림은 비교적 공고한 경제적 기반과 안정된 사회적 환경으로 벼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재지사족의 지위를 지켜나갔다. 노론 정권도 영남유림이 그들의 권력구조에 침투하거나 정권에 도전하지 않는 한 영남의 남인 당론을 허용해 주었다. 남인의 입장을 대대로 지키면서 선조를 받들며 조상의 문자정리, 문집 발간, 족보 편찬 등을 통해 족적 결속을 굳혔다. 따라서 영남유림은 중앙정계 진출을 단념하고 향촌사회에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채 지주로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 갔다.

그런데 영남유림에게 정조의 즉위는 중앙정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정조는 왕권 강화책의 하나로 체제공을 비롯한 남인을 중용하였고,

24) 鄭萬祚, 「英祖 14年の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韓國學研究』1, 1982.

25) 『영조실록』권 33, 영조 9년 1월 정미.

26) 『승정원일기』754책, 영조 9년 1월 13일.

이는 곧 영남과 경남의 정치적 제후를 가져왔다.²⁷⁾ 영남 남인들은 僻派의 농간에 의해 희생당한 사도세자의 伸冤과 追尊운동을 벌였다. 이는 표면상 義理·典禮 문제였으나 실제로는 정조의 호감과 관심을 사서 僻派를 물리치고 남인이 득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 뒤 체제공이 우의정에 特拜되면서 戊申亂의 1周甲을 맞아 안동유림이 주동이 되어 무신난 때 경상도 13개 읍이 창의한 사실을 『戊申倡義錄』으로 편찬하고 예안유생 李鎭東을 疏首로 한 유소를 마련 『무신창의록』을 봉정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嶺南奉命閣臣인 李晩秀를 경주에 보내 崇德展(신라시조 봉안)·玉山書院에 제사를 드리고 귀로에 도산서원에 가서 致祭케 하는 한편 1792년(정조 16) 3월 도산서원에서 별시를 열게 했다. 陶山試士가 있는 지 한 달 정도 후에 思悼世子를 신원하는 영남 유림의 萬人疏가 올라왔다. 정조는 영남만인소를 접하고 疏首 李堦 등 간부 疏任을 즉시 접견하여 자상한 優答을 내렸다. 이 결과 정조는 왕권강화책과 사도세자 추숭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영남인물고』는 정조 때 영남인을 위무하고 회유하여 정권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정조와 체제공의 의도로 편찬하였다. 총 49책 1800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편찬계획을 세우고 체제공이 책임을 맡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정조의 병환으로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

3. 崔興遠의 家系와 師友

최흥원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汝浩·太初, 호는 百弗庵이다. 6대조 崔誠은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공로를 세워 선무원종 2등공신에 책봉되었다. 최계는 만경현령을 지냈으며, 광해군 때 향리에 돌아와 대구 부인동에 移居하여 '變武爲文'의 뜻을 가지고 자제들을 엄히 공부시켰다. 5대조 崔東집은 鄭述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병자호란 후 대군사부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아 반

27)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pp. 531~555.

칭의식을 상징하는 '崇正處士'로 불리었다. 최동집은 비록 인조반정 후 서인정권이 굳어지고 대명의리를 지킬 수 없는 현실에서 재지사족에 불과하였으나, 그의 족적 기반과 명분적 우위를 기반으로 향촌에서 영향력은 강한 편이었으며 이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최동집은 이곳에 향약을 설치하고 시행함으로써 향촌민을 교화해 나갔고, 이것은 최홍원이 실시한 부인동동약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최동집 이후 조부 壽學이 현감을 지낸 것 이외는 관직에 나아간 바 없었다. 따라서 최홍원의 가계는 인조반정 이후 향촌에서 은거하고 있던 영남 재지사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최홍원의 생애는 사림정치가 붕당간의 갈등과 성리학적 이념의 퇴조로 붕괴되고 근기지역에 기반을 둔 소수의 벌열이 정권을 장악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영남남인의 재지사족은 더욱더 관직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일찍이 칠곡 石田의 李柱嵩에게 就學하였고, 향시에 나아가 생원초시에 합격하여 영조 5년 복시에 나아갔다가 과거를 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를 科場에서 병이 난 仲弟 興漸을 주위 친지들이 모두 製呈하는데 바빠 도와주지 않음을 목격하고 名利의 장에서 人情이 상한다고 비판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요행과 부정이 만연한 당시 과거의 폐단과 戊申亂을 갖 겪고 난 뒤 沮喪된 영남 지역의 분위기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최홍원은 출사를 포기하는 대신 향촌을 교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영조 14년 최동집의 溪亭舊址를 찾고 향약을 시행기로 하였다. 그는 朱子增損의 呂氏鄉約을 기준을 삼아 시의에 맞게 증손하여 洞約을 작성하고 이듬해 실시하였다. 이후 영조 50년까지 동약을 보완하여 갔다. 洞民에 대한 教化의 장소로서 講舍를 완성하고, 洞約民의 경제생활·조세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先公庫先公楨·公田碑·卹貧庫 을 세웠다.

영조 38년 장헌세자 상에 여러 날 痛泣하며 침식을 폐하고 문인·제자들이 모두 공부를 폐하고 돌아왔다. 이는 國喪에 弔問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론벌열 정권에 반발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영조 46년에 경상감영에서 유형원의 『礮溪隧錄』을 교감하는데 참여함으로써 현실 중시의 자세

를 고취하게 되었다.

무신난 후 위축되었던 영남유림에게 정조의 즉위는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정조는 노론 별열을 견제하고자 남인 체제공을 등용하였고, 체제공은 영남유림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영남인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최홍원도 학문과 향촌에서의 교화 활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조 2년 景慕宮 守奉官·장릉참봉·동몽교관·공조좌랑·익위사 익찬 등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최홍원의 나이가 80세에 가까웠고 자신의 출처관으로는 관직에 나갈 처지가 아니었다.

요컨대 최홍원은 갑술환국 후 남인이 정계에서 배제되고 더욱이 무신난으로 영남 유림이 몰락하는 가운데 철저히 향촌에서 학문과 교육활동으로 일생을 마친 인물이었다.

최홍원의 사우 범위는 영남지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홍원은 영조 16년 妹婿 柳聖復을 방문하면서 안동 하회의 謙庵·玉淵精舍를 유람한 뒤 權槩를 배알하였고, 같은 해 남쪽지방을 유람하면서 金聖鐸을 배알하였다. 권구는 무신난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처벌 직전까지 갔고, 김성탁은 스승 이현일을 신원하다가 광양에 유배 중이었다. 모두 갑술환국 후 조락한 영남유림의 위상을 대변 해주던 인물들이었다. 영조 22년 도산서원 尙德祠를 배알한 뒤 李象靖(1711~1781)을 만났다. 이상정은 이황 → 張興孝 → 이현일 → 李裁로 이어지는 퇴계 학통을 계승한 인물로 당시 영남유림의 종장으로 역할하였다. 최홍원은 이상정보다 6살 연장이었지만 그의 학문에 대해 존경해마지 않았으며, 두 사람 모두 현실대응의식을 같이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분이 두터워 갔다. 이후 최홍원은 이상정의 향리인 안동 蘇湖里를 2번 방문하고, 이상정은 부인동을 7번 내방하는 한편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다. 이상정과의 만남은 뚜렷한 스승이 없던 최홍원에게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 영남유림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홍원이 이상정에게 학문을 啓發하게 된 정도는 다음에서 잘 나타난다.

홍원은 처음에 이미 失學하고 중간에 奇疾하여 古書에 자력하지 못하였으며, 만년에 身命이 불리하여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家政身習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았다. 스스로 농사에 포기한 즉 이는 진실로 천하의 한 귀머거리 봉사였다. 다시 하나도 친구를 위하여 더불어 취할 것이 없었으나 오직 蘇湖의 노형은 병폐하다고 버리지 않고 줄곧 봉우의 대열에 거두어 주었다. 때로는 편지로 道懷講義하니 마치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어찌 나의 스승은 진실로 사귀는 바에 멀리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부끄러울 뿐이다.²⁸⁾

즉 최홍원은 이상정으로부터 학문을 하는 데 자극을 받았으며, 이상정의 학문적 자세에 대해 신뢰가 매우 깊었음을 토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홍원은 이상정이 학문에서 추구하는 것과 이것에 도달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였다. 이상정의 학문자세는 자신을 반성하고 스스로 舊習을 蕩滌하며 편벽된 점을 변화하는 것으로 이에 도달하고 실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당시 연소배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보다는 문자나 익히고 時文에 힘쓰는 병통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최홍원의 학문자세는 이상정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최홍원은 당시 학문이 실천보다는 과거에 급제하고자 형식적인 문장짓기에 빠져있음을 비판하였다.²⁹⁾ 최홍원은 손자를 이상정의 문하에 맡기면서 敎法이 詞華와 時務에 급급하고 그 근본을 생각하지 않아 世道風敎가 무너짐을 걱정하였다.³⁰⁾ 그리고 최홍원은 자신의 치우친 기질과 경직된 자세로 몸을 다스리고 함양하는 실질이 없음을 한탄하였고,³¹⁾ 이상정이 학문의 자세에 대해 沈潛·靜默 등이 가장 절실하고 긴요함을 강조하자 최홍원은 기대에 저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³²⁾ 요컨

28) 『百弗庵先生文集』권4, 書, 答金直甫 戊寅.“興遠初既失學 中以寄疾 不能自力於古書 晚又身命不利 百計敗壞 家政身習 漸不如初 自分暴棄於農圃 則是誠天下一聾盲也 更無一善可爲朋友取與 而獨蘇湖老兄 不以病廢而棄之 一向收置於朋友之列 時以筆札 道懷講義 有若爲可與語者 豈吾兄信師篤不欲自退於師之所友而不恥下問及此耶 良可愧也”

29) 『百弗庵先生文集』권3, 書, 與李景文象靖 戊辰.

30) 『百弗庵先生文集』권3, 書, 與李景文 己亥.

31) 『百弗庵先生文集』권3, 書, 與李景文.

32) 『百弗庵先生文集』권3, 書, 答李景文 辛巳.

대 최홍원의 학문자세는 근본을 탐구하되 현실과 유리된 사상이나 조잡한 문장에 힘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홍원은 출처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상정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잠시 출사하였다가 향촌에 은거하였는데, 최홍원은 이상정에게 노론정권하에서 굳이 위험한 말과 행동으로써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³³⁾ 이상정이 정조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최홍원은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정에서 그의 동정에 촉각을 기울였다. 이외에 이기설, 상례, 講舍건립, 出處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최홍원은 이상정에게 묘지명, 행장, 記文 등을 부탁하고 子·孫·從子들을 상대방 문하에 각각 출입시켰다. 이들의 돈독한 관계는 최홍원이 이상정의 부고를 받고 비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 데서 잘 나타난다.

大山 老兄이 갑자기 떠나니 쇠잔한 나만 이 세상에 남아 다시 누구와 더불어 의지할 것인가? 실성하고 깊은 슬픔에 찢어지는 것 같다. (중략) 또 들으니 南野(朴孫慶)에게 誌를 부탁하였다고 했는데 南野도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吾黨의 운명이 일시에 이에 이르러 지극히 痛愕하구나. 그 요청한 문자가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또한 슬프고 답답할 뿐이다.³⁴⁾

최홍원의 이상정에 대한 관계가 매우 지극하였고, 이들 문인사이에 '吾黨'이라는 동류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홍원은 鄭宗魯(1738~1816)와의 交誼도 두터웠다. 정종로는 이상정의 문인인 동시에 鄭經世의 6대손으로 이황 → 유성룡으로 이어지는 학맥과도 연결된다. 최홍원은 정종로에게 학문의 순서에 대해 '明得盡'한 후에 '行得盡'하고 현실대응자세에서 자신의 분수를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³⁵⁾ 손자 崔滉의 학문을

33) 『百弗庵先生文集』권3, 書, 與李景文 己巳.

34) 『百弗庵先生文集』권4, 書, 與金直甫 壬寅. "大山老兄奄棄 衰損獨留人世更誰與依 失聲長慟 摧裂無比 (중략) 又聞請誌於南野 南野又忽棄世 吾黨之運 一時至此 已極痛愕 而其所請文字成否 未詳 又一悲鬱耳"

35) 『百弗庵先生文集』권5, 書, 答鄭士仰 宗魯.

부탁하였다. 그리고 최홍원은 李光靖·金宗敬 형제·朴孫慶 등의 안동지역 유림 과도 교유하였다. 이외 최홍원의 사우관계는 영남지역을 벗어나 기호남인과도 연결되고 있었다. 李瀾·蔡濟恭에게 5대조 최동집 행장의 교감을 부탁하였고, 최홍원의 묘지명은 安鼎福이 찬하였다. 요컨대 최홍원의 학문에 큰 영향을 준 사우는 이상정을 중심으로 안동·의성지방이었고, 그의 학문의 명성이 높아지자 기호남인에게도 확대되었던 것이다.

최홍원은 자신의 학문을 바탕으로 교학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급문록에 123명의 문인이 등재되어 있다.³⁶⁾ 이를 거주지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홍원 문인의 거주지

거주지	부인동	안동	칠곡	대구	밀양	경주	의성	단성	선산	고령	영천	하양	상주	서울	현풍	예천	거창	성주	합계
인원	35	21	13	12	8	6	6	6	3	2	2	2	2	1	1	1	1	1	123

문인의 대부분은 부인동과 인근 대구, 칠곡에서 급문하였다. 안동은 이상정의 子姪들이고, 의성은 金宗敬형제와 아들이 대부분이었다. 문인 가운데 부자, 형제, 숙질이 함께 급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9명,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3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도 하위관직에 그쳤다. 이는 최홍원이 과거를 위한 공부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데 기인하였다. 대신에 학문으로 문집을 남긴 인물은 48명이나 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4. 崔興遠의 出處와 現實對應

최홍원은 봉당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여 사림정치가 붕괴되고 탕평정치

36) 『百弗庵先生言行錄』권7, 及門錄.

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살았다. 남인은 관직에서 배제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영남남인이 무신난에 동조하였다가 심한 탄압을 받았다. 난후 노론정권은 좌·우도를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여 난의 근원을 우도에 한정하고자 했다. 학문이 순정치 못한 조식이 우도에 세거하였으므로 기질을 숭상하고, 좌도는 이황이 세거하였으므로 무신난 때 연루된 자가 없었다³⁷⁾는 것이다. 최홍원이 살았던 대구는 직접 무신난을 겪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평영남비를 세워서 묵시적으로 탄압을 가하였다. 이는 최홍원의 제자 崔興璧이 금일의 5가지 폐단 중에 仕路에서 偏論의 폐단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데서 엿볼 수 있다.³⁸⁾ 영남유림은 노론 정국하에서 진출할 수 없는 원인을 당론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최홍원도 봉당간의 갈등 원인을 큰 과자의 다툼에 비유하여 노론 정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³⁹⁾ 최홍원은 당론이 생겨나면서 인심이 轉激하여져 賢愚邪正을 묻지 않고 같은 당이면 보살피고 다른 당이면 미워하니 실로 공정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며 차라리 시세를 쫓는 자는 오히려 당론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⁴⁰⁾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최홍원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그 일도 도모하지 마라⁴¹⁾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출사를 단념하고 재지사족으로 자족할 수밖에 없었다.

최홍원은 자신이 현실에 출사하지 않는 이유를 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불의에 맞서 위험한 말로써 화를 부르기보다는 特立하여 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이상정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난다.

危行·言遜에 논한 바에 대해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言遜은 대개 避禍를 위해서 한다면 危行은 반드시 取禍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 스스로 權度求中의 道가 있다. 혹 사안의 輕重大小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危行으로 높게 여기고 몸이 危地에 빠져 드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

37) 『영조실록』권 52, 영조 16년 12월 신축.

38) 『蠹窩先生文集』권6, 山中問答.

39) 『百弗庵先生言行錄』권2, 墓誌銘, 安鼎福撰.

40) 『百弗庵先生言行錄』권5, 類編, 論事.

41) 『百弗庵先生言行錄』권5, 類編, 論事.

마 오히려 失中할 것이고 성인 立言의 뜻에 어긋날 것이다. 대저 介然守道하고 세상에 不徇하는 자를 高特이라 지목한다. 高特은 곧 危底意인 것 같다. 그러나 말하기를 危者란 것이 어찌 故爲로 高特하는 것이겠는가? 특별히 지키는 바를 불변할 뿐이다. 군자언행에 비록 二致가 없다하더라도 행하여 안을 유지하고 말하여 밖에 응대한다. 이는 危行으로 取禍하지 않고 홀로 危言으로 쉽게 致禍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 몸을 굽혀 쫓아 화를 면한다. 바야흐로 이는 군자가 危行하여 守道하고 言遜하여 避禍하는 것이다. 만일 불의를 당하여 반드시 그 잘못을 엄하게 물리치고 特立不行하면 特立은 비록 危行인 것 같고 峻斥은 危言에 가깝지 않겠는가? 옛 사람이 화를 부르는 것은 많이 이와 같은 것에 不免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 言行之 구별에 밝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후일에 논하는 자가 왕왕 살필 줄을 모르니 심히 개탄스럽다.⁴²⁾

즉 최홍원은 사안의 경중대소를 구별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중용을 잃었다고 보았다. 위험한 행동으로 도를 지키되, 공손한 말로써 화를 피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사람들이 출사하지 않는 자신을 높고 특별하다고 지목하나 이는 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노론 정권 하에서 현실에 적극 출사하여 화를 부르기보다는 향촌에서 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최홍원은 정국의 동향과 출사에 관심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다. 이상정이 남인에 호감을 갖고 있던 정조의 부름을 받고 출사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최홍원은 칠십 늙은이가 감히 언급할 때가 아니어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⁴³⁾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출사하되 반드시 時義를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⁴⁴⁾ 그리고 관직에 대한 애착도 표시하였

42) 『百弗庵先生文集』권3, 書, 與李景文 己巳. “所論危行言遜 鄙意言遜蓋爲避禍 則危行非必取禍 其間自有權度求中之道 若或不察事之輕重大小 一以危行爲高 不難於身入危地 則恐反失中 有違於聖人立言之意也 大抵介然守道 不徇於世者 目以高特 高特便是危底意然 其曰危者豈故爲高特哉 特不變所守而已 君子言行 雖無二致 而行以持內 言以應外 此所以危行 不必取禍 獨危言易致禍 故必小致委曲 以免於禍 方是君子之危行而守道 言遜而避禍也 萬一當不義 必峻斥其非 特立不行 則特立雖似危行 峻斥不幾於危言乎 古之人取禍者 多不免如此 此恐不明於言行之別而然也 而後之論者 往往不知察焉是甚可慨也”

43) 『百弗庵先生文集』권3, 書, 與李景文 丁酉 : 答李景文.

44) 『百弗庵先生文集』권3, 書, 答李休文 辛丑.

다. 정조 9년 지평 金宗敬이 사직하자

持平公이 갑자기 사직했다고 하니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 마음이 편안하여 즐거워하는 견식과 강개한 지조는 나이로 빌렸으나 그 業을 궁구한다면 어떤 일이든 못하겠느냐마는 이렇게 갑자기 하니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興遠이 구차스럽애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이 소식을 들으니 몸이 외롭고 고달픔을 더욱 깨닫겠다.⁴⁵⁾

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조 5년 자신에게 관직을 내리자 公議가 不泯함을 가히 볼 수 있다⁴⁶⁾라고 하여 영남남인의 수용을 공론으로서 당연시 하였다. 이는 곧 최홍원을 포함한 영남 남인이 당연히 조정에 등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출처관에 따라 최홍원은 조정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언급 자체를 회피하였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官政의 득실을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子姪들에게 비록 한가하게 말하는 사이에도 일체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⁴⁷⁾ 수령이 방문하겠다고 하면 편지로서 사양하고 관청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城市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⁴⁸⁾ 夫仁洞洞約의 講舍節目에 춘추 講信시에 상하노소가 모름지기 충성스럽과 유익한 일을 해야지 패악한 말로 조정·주현의 정사를 사사로의 논의한다든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말도록 규정했다.⁴⁹⁾ 그리고 수령으로 나가 있는 문인들에게 관청에서 사사로운 것을 할 때 반드시 절약하고 신중하여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동요케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⁵⁰⁾

45) 『百弗庵先生文集』권4, 書, 與金道彦兄弟 乙巳.“賢仲持平公奄辭蒼闈 痛哉惜哉 其樂易之見 耿介之操 假之以年 益究其業 則何事不可做也 而乃奄忽如此 天意不可知也 興遠苟寄人世 又聞是報 益覺此身孤酸”

46) 『百弗庵先生文集』권3, 書, 答李休文.

47) 『百弗庵先生言行錄』권5, 類編, 處鄉.

48) 『百弗庵先生言行錄』권3, 言行總錄 崔興璧.

49) 『百弗庵先生文集』권7, 雜著, 夫仁洞洞約, 講舍節目. 金容燮은 앞의 논문 p.137에서 동민들의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민심의 혼란, 반정부 여론의 형성, 對人 적대감정의 유발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대신에 최홍원은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영조 16년 국왕이 綸音을 내리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曉諭하고 報效의 도리로 노래를 지어 칭송하였다고 한다. 또한 國恤시 因山전에 行素하고 금주령이 내리면 告廟用醴에 비록 藥用이라도 술을 사용하지 않고 소를 잡지 못하도록 하면 제사 쓰임에 반드시 관청의 뜻주 안에서 사서 썼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환곡을 납부하는데 하층민보다 술선수범 하였다.⁵¹⁾

이러한 현실은 최홍원으로 하여금 소극적인 현실대응의식을 갖게 하였다. 최홍원은 현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보다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그는

문기를 모든 일은 순리상 이루어지는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기를 이는 좋은 소식이다. 順은 곧 循理를 말함이니 천하의 甚事는 循理하여 順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의 出位の 일에서 분수가 아닌 것을 바라는 것도 역시 循理하지 않기 때문이다.⁵²⁾

라고 하였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로서 이를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노론 정국에 출사할 수 없게 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옥산서원의 쟁단이 일어나자 최홍원은 오직 肅默하여 目前 自守의 요체로 삼겠다⁵³⁾라 하여 시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최홍원이 현실에 소극적인 출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에 실천하는 학문을 중시하였다. 최홍원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여 임금을 모시는 방도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과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출사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하였지만 과거 그 자체에 대한 폐단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최홍원은 과거로 인해 인심

50) 『百弗庵先生文集』권4, 書, 答孫來徵相龍.

51) 『百弗庵先生言行錄』권2, 墓誌銘, 安鼎福撰.

52) 『百弗庵先生言行錄』권4, 類編, 講辨. “問凡事 莫如順字上做 將去何如 曰此好消息也 順卽循理之謂 天下甚事 不循理而順也 蓋人之出位之事 非分之望 亦不循理故也”

53) 『百弗庵先生文集』권4, 書, 答李命吉 丙午.

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하였다. 즉 과거의 순위를 정할 때에 비록 숙질형제의 사이라도 반드시 서로 이기고자 하여 조금도 물러서거나 양보할 뜻이 없다⁵⁴⁾는 것이다. 다음은 학문의 본질에서 벗어나 요행으로 과거에 합격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이다. 이는 최홍원이 문인 李仲綬에게

과거에 응시하겠다는 뜻은 부모를 모시는 사람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습관이 지극히 익숙해 진 뒤에 나아가 하늘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가하다. 혹 그러지 않고 여러 사람의 요행에 따라 구하고자 한다면 心身上에 잃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오직 뜻을 정하여 혹시라도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되지 말아야 한다.⁵⁵⁾

라고 한 데서 잘 나타난다. 최홍원은 스스로 저술을 즐겨하지 않았으며 아들 周鎭에게 성현의 도를 실천하지 않고 科作에 몰두한다고 질책하고,⁵⁶⁾ 손자 崔湜에게 과업에 전력하지 못하도록 저술을 허락하지 않았다.⁵⁷⁾ 문인인 鄭忠弼이 소과에 합격하자 志意가 잃을 뿐 아니라 후에 상처를 입어 중독될 것을 경계하였다.⁵⁸⁾ 당시 연소배들이 과거에 빨리 합격하고자 문구를 약간이라도 익히게 되면 시류에 쫓고 교묘한 것에 경쟁하여 性理의 근원이나 實地用工에 힘쓰지 않았다.⁵⁹⁾ 오랫동안 연마하여 한번에 그 재주를 파는 것을 능사로 여긴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상정과 거의 동일하였다.⁶⁰⁾ 이상정은 당시 과거의 폐단으로 식년시 이외 부정기시의 잦은 설행, 의리의 窮究보다는 답안지 작성을 위해 詞賦에만 집착하는 점, 科場의 온갖 부정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극론하였다. 과거가 이름이 선비를 뽑는 것이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근거가 되

54) 『百弗庵先生言行錄』권5, 類編, 論事.

55) 『百弗庵先生文集』권4, 書, 答李仲綬. “看究不懈 進學可知 至於應試之意 侍下人所固然 然習之至容易後 出應以聽天可也 或不能然而欲隨衆徼幸以求之 則心身上所失不些 惟定志而無或爲因循自欺之歸如何”

56) 『百弗庵先生文集』권6, 書, 寄兒.

57) 『百弗庵先生文集』권5, 書, 答鄭士仰 庚子.

58) 『百弗庵先生文集』권4, 書, 答鄭昌伯 忠弼 戊子.

59) 『百弗庵先生文集』권4, 書, 答金直甫 己卯 : 答郭德夫 基 丙子.

60) 『大山先生文集』권42, 雜著, 科舉私議, 己未.

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반 잡과를 일체 혁파하여 士子の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막고 단지 식년시만을 두어 과거에 응하는 여가에는 조용히 한가하게 독서하며 수행하는 곳으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대신에 최홍원은 孝悌와 같은 현실에 실천하는 학문에 충실하도록 권하였다.
즉

내가 그대들에게 바라는 바는 다른 것이 없다. 오직 각지 도를 닦아서 학문하는 것을 걱정하되 가난을 걱정하지 말며 도를 도모하되 부를 도모하지 말라. 뜻을 돈독하게 하여 힘써 실천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나 파하고자 하나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뜻을 그대들이 서로 알 것이다. 근래 보니 연소배들이 반드시 科業에 오직 몰두하고자 하니 이 말을 한 것이다.(중략)어제 들으니 士教(崔興璧)가 庭招가 있어 왕래함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여 머물 것을 告請했다고 한다. 그 違命이 비록 가히 황공하나 아마 학문함이 곧 孝悌를 행하는 까닭이다. 이는 역시 허물을 보고서 어짐을 아는 것이다. 이와같이 수십년 그 성취하는 바가 거의 기질을 변화하고 명예를 드높이여 그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구차한 科業이 스스로 그 속에 있으니 죽히 논할 바가 아니다. 그대들은 오직 맹자·논어를 힘쓸 것이며 여기에 긴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주자서가 없다고 해서 한스럽게 여기는가?⁶¹⁾

라고 하였던 것이다. 배움의 목적은 현실의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수양하는 데 있지 쓸데없이 과거를 목적으로 문장을 익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옛 성현의 治心養性の 요점을 살피 隨時體行할 것을 권하였다.⁶²⁾ 현실의 이익을 붙쫓는 학문보다는 의리와 원칙에 철저한 학문을 요구하였다.

최홍원의 이러한 현실대응의식은 절친한 사이였던 이상정의 그것과 일맥상통하였다. 최홍원은

61) 『百弗庵先生文集』권6, 書, 答仲賓養吾興遠士教.“我之所期望於僉君 視昔彌篤者無他一欲以各修孝悌之道 憂學而不憂貧 謀道而不謀富 篤志勉行 以至必有得焉 而欲罷不能 此意僉君可相知矣 近觀膝下少輩 必欲專著時業 以此等說話看作耳(중략)昨聞士教有庭招 而以往來妨工 告請姑留云 其違命雖可惶 恐爲學乃所以行孝悌 此亦觀過而知仁 如此十數年 其所成就 不幾於變化氣質 身有令名 以顯其親乎 區區科業 自在其中 有不足論也 僉君切須共勉孟子魯論 俱是緊切 何須以姑闕朱書爲恨”

62) 『百弗庵先生文集』권5, 書, 答柳甥仁 丙戌.

李景文(이상정)이 오랫동안 함께 강학하다. 지금 방문하여 머물면서 말하는 중에 그 言論志氣가 젊어서 文章榮利에 힘쓰지도 않고 明善修道의 곳에 立脚한다. 한결같이 體行으로 第一義를 삼으니 정말로 나의 도움이 되는 친구이다. 소학·대학의 의심나는 곳을 강론하고 인해서 고금 教養人心의 요체를 말하다. 또한 말하기를 만약 과거를 폐하지 않는다면 인심을 蘇定시킬 까닭이 없다. 이 말은 정말로 좋다.⁶³⁾

라고 하였다. 헛된 명예만을 쫓아 학문의 본질을 왜곡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일상생활 속에 도덕·윤리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5. 맺음말

선조 초에 성립된 士林政治는 봉당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18세기 蕩平政治로 전환되었다. 본고에서는 탕평정국하에서 영남유림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재지사족으로 은거하고 있던 최홍원의 시대와 현실대응의식을 살피고자 했다.

16세기 이래 士林派의 성장과 성리학적 질서가 총체적으로 확산되어 선조초 士林政治가 확립되었다. 사림정치는 그 전개과정에서 현실대응인식의 차이로 사림 내부에 退溪·南冥學派의 東人과 栗谷·牛溪學派의 西인으로 나누어졌다. 동인은 1589년(선조 22) 己丑獄事를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졌고, 광해군대는 남명학파를 영도하던 鄭仁弘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좌·우도간에 갈등이 있었다. 인조반정후 영남유림은 좌·우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남인 당론을 견지하면서 서인이 학통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牛栗從祀를 좌절시키고 예송에서 남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숙종 즉위 후 남인은 濁南과 淸南으로 나뉘져 권력이 탁남 쪽으로 기울어지는

63) 『百弗庵先生文集』권8, 雜著, 歷中雜錄.“李景文久欲與之講學 今蒙臨訪 留說意中事 見其言論志氣 無少役於文章榮利 而立脚於明善修道之地 一以體行爲第一義 正吾益友也 講論小疑大處 因說古今教養人心之要 又曰若不廢科舉 萬無蘇定人心之理 是說極好 戊辰”

가운데 영남인 在朝者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영남유림을 대표한 李玄逸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봉당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갑술환국으로 영남인은 철저히 정국에서 배제되었고,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과 소론이 연합하여 1728년(영조 4)에 戊申亂(李麟佐의 亂)을 일으켰다. 왕권의 위기를 경험한 영조는 탕평론을 주창하였지만 서울에 기반을 둔 노론 별열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노론은 영남을 강경책으로 진압하는 한편, 노론으로 전향을 적극 권장하였다. 영남유림은 비교적 공고한 경제적 기반과 안정된 사회적 환경으로 벼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재지사족의 지위를 지켜나갔다.

최홍원의 가계는 인조반정 이후 향촌에서 은거하고 있던 영남 재지사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최홍원은 요행과 부정이 만연한 당시 과거의 폐단과 戊申亂을 갖 겪고 난 뒤 沮喪된 영남지역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과거를 포기하였다. 최홍원은 출사를 포기하는 대신 향촌을 교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최홍원은 정조대에 학문과 향촌에서의 교화 활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관직에 나갈 처지가 아니었다. 최홍원은 갑술환국 후 남인이 정계에서 배제되고 더욱이 무신난으로 영남 유림이 몰락하는 가운데 향촌에서 학문과 교육 활동으로 일생을 마친 인물이었다.

최홍원의 사우 범위는 영남지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최홍원은 퇴계학통을 계승한 李象靖과 교분이 두터웠다. 최홍원은 그의 학문에 대해 존경해마지 않았으며, 두 사람 모두 현실대응의식을 같이하였다. 최홍원은 실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이상정의 학문적 자세를 매우 신뢰하였다. 최홍원도 당시 학문이 실천보다는 과거에 급제하고자 형식적인 문장짓기에 빠져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최홍원은 출처에 대해서도 이상정에게 노론정권 하에서 굳이 위험한 말과 행동으로써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홍원은 이상정에게 묘지명, 행장, 記文 등을 부탁하고 子·孫·從子들을 상대방 문하에 각각 출입시켰다. 이외 최홍원의 사우관계는 영남지역을 벗어나 기호남인과의 연결되고 있었다.

최홍원은 영남남인이 관직에서 배제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영남남인이 무신난에 동조하였다가 심한 탄압을 받았던 시기에 살았다. 최홍원은 붕당간의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최홍원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그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출사를 단념하고 재지사족으로 자족하였다. 최홍원은 노론 정권 하에서 현실에 적극 출사하여 화를 부르기보다는 향촌에서 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최홍원은 영남인의 수용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출처관에 따라 최홍원은 조정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언급 자체를 회피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최홍원으로 하여금 소극적인 현실대응의식을 갖게 하였다. 최홍원은 현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보다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홍원이 현실에 소극적인 출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에 실천하는 학문을 중시하였다. 대신에 최홍원은 孝悌와 같은 현실에 실천하는 학문에 충실하도록 권하였다. 최홍원은 헛된 명예만을 쫓아 학문의 본질을 왜곡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일상생활 속에 도덕·윤리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요컨대 최홍원은 권력이 별열가문에 집중되어 가는 시기에 생존하면서 관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과 현실대응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는 곧 향촌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 향약의 실시로 나타났다.